



우리나라는 난민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현대사회의 윤리」와 「동양고전철학」강의페어링

경영학과 김민우 201721352 이진희 교수님 지도

연구목적

난민을 수용하는 것이 왜 타당한지를 윤리적, 경제적인 관점에서 서술하여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 난민의 현주소를 개선시키고자 한다.

난민의 정의 및 그들의 현 상황

난민이란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에티오피아에 거주하는 예멘 난민 모아드 샤루키씨에 따르면 예멘 인구 2천 9백만명 중에서 2천 2백만 이상이 현재 절대적인 구호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한다. 10분에 한 명꼴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과학 연구소의 연구결과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CNRS), 클레르몽 오베르뉴대 국제개발연구센터, 파리 낭테르대 경제학자 및 수학자들이 OECD 통계 및 경제전망 자료를 바탕으로 1985~2015년 약 30년간 유럽 15개국에 유입된 난민이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보았다. 연구팀은 201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리스토퍼 심스 교수가 개발한 거시경제 분석 통계모델을 사용했는데 난민이 수용된 이후로부터 3~5년 뒤 1인당 GDP가 증가했고 실업률이 떨어졌으며 세수도 1% 증가했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를 통해 결국 난민을 수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익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cn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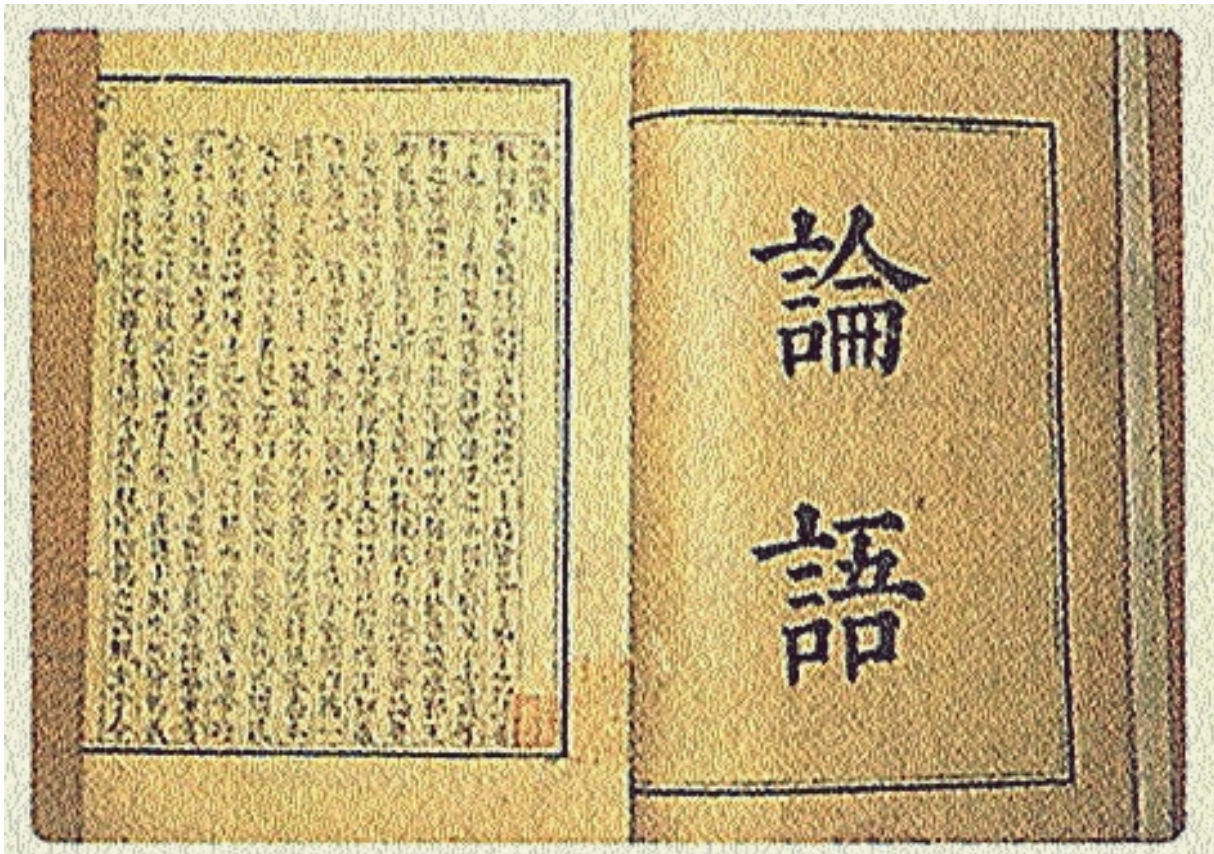
세계인권선언문 및 우리나라 법의 내용

세계인권선언에서는 난민은 피난처를 구할 권리와 그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기재해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친 바 있다. 또한 법적으로 우리나라는 1992년에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했고, 2013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였다. 즉 우리나라는 제정된 법규에 의거해 난민을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윤리학적으로 난민을 수용해야하는 이유

공자가 말하기를, “더불어 말할 만한 사람인데도 함께 더불어 말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는다.”



(子曰 可與言而不與之言 失人) -논어, 위령공 제7장-

합리적이지 못한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더불어 할 만한 사람들과 소통을 하지 못하고 결국 그들을 잃게 된다.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출생아 숫자는 약 35만 7700명 정도이고 사망자 수는 28만 5600명이어서 예전에 비해 인구성장이 거의 멈추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인구 자연증가분의 감소로 인해서 통계청에서는 2027년 정도에 국내 총인구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나라의 국력을 신장시켜줄 난민 수용을 거부하면 저출산과 고령화로 우리나라의 위기가 커질 것이다. 우리나라가 난민을 수용해 언어교육, 직업훈련 및 연수를 진행하면 결국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지방정부의 예산 확보에도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난민은 우리나라에 더불어 할만한 존재들이다. 그들을 멀리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을 잃지 않으려면 그들을 수용해야 한다.

결론

난민을 수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력 및 경제에 긍정적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지켜야할 의무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과거에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수백 만명의 난민이 생겨난 적이 있다. 이때의 많은 난민(14000명)을 거제도까지 미국 상선 빅토리아호가 운반한 바 있다. 또 전쟁 이후에는 세계 각지에서 우리나라로 식량과 옷 등을 원조해주었다. 이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고 과거 은혜를 다른 많은 나라로부터 받은 바 있으니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

참고자료

논어, 네이버 지식백과, 이승규 기자, “난민 찬반 수용 여부 떠나 이웃으로 받아들여야”, <노컷뉴스>, 2018.09.27, <http://news.zum.com/articles/47850857>, 한현구 기자, “난민 수용 찬반? 이제 ‘사회 통합’ 고민할 때다”, <아이굿뉴스>, 2018.10.02, <http://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7812>, 유용하 기자, “난민들은 거시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서울신문>, 2018.06.26,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627023004>, 위키피디아